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5권 제1호, 2009년 6월
J Korean Acad Soc Nurs Edu Vol.15 No.1, 15-21, June, 2009

간호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임상수행능력과의 관계

최 은 희[1)]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진로를 선택하는 것은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조명실, 2006). 진로정체감은 직업에 대한 자신의 목표, 흥미, 능력에 대한 명확하고 안정된 심상을 갖추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또한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불가피하고 모호한 환경적 상황에 직면하여 적합한 결정을 내리는 자기확신과 관련이 있어 직업적, 개인적 적응을 보다 광범위하게 측정할 수 있다(김희수, 2007).

대학생인 간호학생에게도 진로정체감은 중요하나 간호학을 선택한 간호학생은 직업적 선택을 이미 하고 들어온 상태이며, 대학을 졸업한 후 비교적 취업률이 높기 때문에 진로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또한 간호과 교수도 진로지도에 있어 삶의 방향을 제시하기 보다는 해당기관의 간호사 채용정보를 전달해주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조희, 이규영, 2006).

신규간호사가 간호전문인으로서 뚜렷한 진로정체감을 형성하지 못한 채 간호업무에 임하면 낮은 직업만족도와 높은 이직의도를 갖기 쉽다는 조희와 이규영(2006)의 연구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간호사 부족 현상과 함께 신규간호사의 직장 조기이탈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뚜렷하지 못한 진로정체감으로 인해 신규간호사가 새로운 병원환경과 간호사라는 직업에 적응하는 것을 실패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진로정체감 확립이 대학생활적응도를 높여 진로발달과업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황매향과 박혜영(2005)의 연구에서 뚜렷하지 못한 진로정체감은 부적응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졸업후 간호학생의 적응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진로정체감을 확인해보는 것은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간호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간호학생이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간호사로서의 전문직관을 가지고 임상실무를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인재양성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간호사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실무능력 즉, 다양한 임상현장에서 요구되는 지식, 기술, 동기와 태도의 조합인(Zhang et al., 2001) 임상수행능력 함양이 요구된다. 임상수행능력은 환자들에게 수준 높은 간호를 제공하고 자아인식, 동기부여, 정서적 영향력, 기술과 지식들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통합하는 행위 또는 효과적인 임상간호의 수행을 의미한다(Lee-Hiseh, Chihui Kao, Chienlin Kuo, & Tseng, 2003). Watson, Stimpson, Topping과 Porock(2002)은 간호에서의 핵심은 임상수행능력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고 임상수행능력을 교육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간호학생은 간호교육과정에서 임상수행능력을 함양해야하고 졸업 후 적응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자는 간호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임상수행능력 정도를 측정하고 진로정체감과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 정도와의 관계를 파악하여 임상수행능력 향상, 졸업 후 적응향상 및 간호 이직률 감소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주요어 : 간호학생, 진로정체감, 임상수행능력
1) 영남이공대학 간호과 전임강사(교신저자 E-mail : eh5472@ync.ac.kr)
투고일: 2009년 4월 15일 심사완료일 2009년 6월 4일 게재확정일: 2009년 6월 12일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간호학생의 진로정체감을 파악한다.
-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을 파악한다.
- 간호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임상수행능력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임상수행능력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연구대상은 D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3년제 D대학, K대학 간호과에 재학 중인 3학년 간호학생 중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동의서에 서명한 22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본 연구에 부적절한 응답을 한 대상자 4명을 제외한 217명(98.2%)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도구

● 진로정체감

Holland Daiger와 Power(1980)이 개발한 것을 김봉환(1997)이 번안하고 권윤희(2002)가 간호학생의 진로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해 수정·보완한 도구이다. 총 14문항, 4점 척도로 되어있으며 채점은 역환산을 하였다. 각 문항은 매우그렇다 1점, 다소 그런편이다 2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3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으로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신뢰도는 김봉환(1997)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가 .89이었으며, 권윤희(2002)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가 .88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가 .82이었다.

● 임상수행능력

임상수행능력 측정도구는 이원희(1991)가 개발한 것을 최미숙(2004)이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45문항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상수행능력에 관한 5가지 영역을 측정하며 간호과정 11문항, 간호기술 11문항, 교육/협력관계 8문항, 대인관계/의사소통 6문항, 전문직 발전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못한다 1점, 약간 못한다 2점, 보통이다 3점, 약간 잘한다 4점, 매우 잘한다 5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이원희(1991)가 개발할 당시는 Cronbach's α가 .96이었으며 최미숙(2004)은 Cronbach's α가 .92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가 .95이었다.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09년 3월 2일부터 3월 30일까지이다. 본 연구자가 해당 간호과를 방문하여 각 학교의 교수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자료수집에 대한 협조를 구하였다. 또한 학생에게도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한 학생에게만 설문지를 배부하여 동의서에 서명을 부탁한 후 설문지를 직접 작성하도록 한 후 회수 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Program을 이용하여 전산처리 하였으며,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진로정체감, 임상수행능력은 실수,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정체감, 임상수행능력은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으며 Scheffe test로 사후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진로정체감과 임상수행능력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D시의 3년제 간호과에 재학 중인 2개교 대학의 3학년 간호학생을 임의표집하였으며 간호학생들의 주관적 보고에만 의존하였으므로 이를 객관화하고 일반화하는 데에는 제한점이 있다.

연구 결과

일반적 특성

대상자 중 87.6%가 여학생이었으며, 연령은 21-25세가 74.4%를 차지하였다. 결혼 상태는 97.1%가 미혼이었으며 재수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전체의 8.8%를 차지하였다. 주거형태는 가족과 함께 가정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70.5%를 차지하였으며, 대학 입학시 만족도는 93.5%가 만족한다고 하였다. 종교는 기독교가 전체의 21.2%로 가장 많았으며 동아리활동을 하는 대상자가 전체의 12.4%를 차지하였으며 취업을 원하는 곳으로는 종합병원이 전체의 76.0%를 차지하였다. 임상

실습 만족도는 82.0%가 만족했으며, 임상실습에 대한 책임은 '전임교수와 수간호사가 함께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36.4%, '전임교수만'이 30.9%, '수간호사만'이 26.7%를 차지하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17)

Variables	Classification	N	%
Sex	Male	27	12.4
	Female	190	87.6
Age	≤20	40	12.8
	21 - 25	233	74.4
	26 ≤	40	12.8
Marriage	Yes	9	2.9
	No	304	97.1
Repeat entrance examination	Yes	19	8.8
	No	198	91.2
Residental type	House with family	153	70.5
	Lodging	49	22.6
	The others	15	6.9
Satisfaction of college entrance	Very satisfaction	52	24.0
	Medium satisfaction	151	69.5
	Unsatisfaction	14	6.5
Religion	Buddhist	35	16.1
	Christian	46	21.2
	Catholic	24	11.1
	None	112	51.6
Group activity	Yes	27	12.4
	No	190	87.6
Working place to want	Hospital	165	76.0
	Public service personnel	26	12.0
	Industrial nurse	7	3.2
	Abroad nurse	10	4.6
	The others	9	4.1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Very satisfaction	22	10.1
	Medium	156	71.9
	Unsatisfaction	39	18.0
Charge of clinical practice	Professor	67	30.9
	Head nurse	58	26.7
	Professor and head nurse	79	36.4
	The others	13	6.0

간호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임상수행능력

대상자의 진로정체감 총점은 31.90±5.92이었으며, 임상수행능력 총점은 145.13±20.53이었다. 임상수행능력의 총문항 평균은 3.33±.45이었고, 각 하부영역 문항평균 중 대인관계 의사소통이 평균 3.43±.56로 가장 높았으며, 전문직 발전이 평균 3.42±.52로 그 다음 순이었다. 가장 낮은 하부영역은 간호기술로 평균 3.25±.56이었다.

<Table 2> Career identity and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N=217)

Variable	Item(N)	Total	Item
		M±SD	M±SD
Career identity	14	31.72± 5.99	2.27±.43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45	145.13±20.53	3.33±.45
Nursing process	11	36.09± 5.33	3.28±.48
Nursing skill	11	35.76± 6.19	3.25±.56
Education/cooperation	8	26.57± 4.35	3.32±.53
Interpersonal communication	6	20.21± 3.25	3.43±.56
Professional develop	9	30.04± 4.69	3.42±.5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정체감

진로정체감은 대상자의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가 있었으며 (F=4.925, p=.008) 사후분석 결과 26세 이상보다 21세에서 25세 사이가 유의하게 진로정체감이 높았다. 진로정체감은 대학입학에 대한 만족도(F=24.024, p=.000)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가 있었으며 사후 분석 결과 매우 만족하는 군보다 중간 만족한다와 불만족 하는 군이 유의하게 진로정체감이 높았으며 중간 만족한다는 군보다 불만족하는 군이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진로정체감은 임상실습 만족도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10.179, p=.000) 사후분석 결과 매우 만족한다는 군보다 중간 만족한다와 불만족 한다는 군이 유의하게 높

<Table 3> Career identity related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17)

Characteristic	Classification	M±SD	t or F	p	Post hoc
Sex	Male	29.52± 6.58	-2.056	.041	
	Female	32.04± 5.86			
Age	≤20	32.50± 7.11	4.925	.008	b>c
	21 - 25	32.29± 6.01			
	26 ≤	29.00± 5.05			
Marriage	Yes	26.89± 4.23	-2.499	.013	
	No	31.93± 5.98			
Repeat entrance examination	Yes	31.11± 5.85	-.980	.328	
	No	31.78± 6.02			
Residental type	House with family	32.03± 6.15	1.675	.095	
	Lodging	30.39± 5.40			
Satisfaction of college entrance	Very satisfaction[a)]	27.79± 5.56	24.024	.000	a<b, c, b<c
	Medium satisfaction[b)]	32.51± 5.50			
	Unsatisfaction[c)]	37.86± 4.22			

<Table 3> Career identity related to general characteristics(continued) (N=217)

Characteristic	Classification	M±SD	t or F	p	Post hoc
Religion	Buddhist[a)]	31.63±16.34	.196	.899	
	Christian[b)]	31.20± 4.87			
	Catholic[c)]	31.63± 6.03			
	None[d)]	32.00± 6.35			
Group activity	Yes	31.52± 5.32	-.189	.850	
	No	31.75± 6.10			
Working place to want	Hospital	31.69± 5.90	2.418	.050	
	Public service personnel	32.92± 7.04			
	Industrial nurse	36.00± 3.42			
	Abroad nurse	28.10± 4.86			
	The others	29.56± 5.03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Very satisfaction[a)]	26.95± 6.45	10.179	.000	a<b, c
	Medium satisfaction[b)]	34.87± 5.57			
	Unsatisfaction[c)]	33.82± 6.10			
Charge of clinical practice	Professor	32.06± 6.09	1.882	.134	
	Head nurse	32.38± 6.39			
	Professor and head nurse	31.54± 5.45			
	The others	28.15± 6.34			

<Table 4>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related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17)

Characteristic	Classification	M±SD	t or F	p	Post hoc
Sex	Male	161.37±24.67	3.238	.001	
	Female	148.14±19.12			
Age	≤20	156.13±27.53	1.341	.264	
	21 - 25	150.44±20.21			
	26 ≤	145.47±18.91			
Marriage	Yes	136.11±22.76	-2.079	.039	
	No	150.38±20.04			
Repeat entrance examination	Yes	145.42±16.64	.527	.469	
	No	150.20±20.61			
Residental type	House with family	149.10±19.12	-.861	.393	
	Lodging	152.43±24.83			
Satisfaction of college entrance	Very satisfaction[a)]	159.83±24.40	9.352	.000	a>b, c
	Medium satisfaction[b)]	147.00±17.58			
	Unsatisfaction[c)]	142.50±19.92			
Religion	Buddhist[a)]	150.63±17.85	.096	.962	
	Christian[b)]	150.70±21.67			
	Catholic[c)]	150.08±27.22			
	None[d)]	149.08±18.97			
Group activity	Yes	154.44±13.89	1.277	.203	
	No	149.12±21.00			
Working place to want	Hospital	147.87±18.95	1.805	.129	
	Public service personnel	155.08±21.62			
	Industrial nurse	151.14±19.54			
	Abroad nurse	160.40±33.00			
	The others	156.89±20.76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Very satisfaction[a)]	164.95±25.34	7.341	.001	a>b, c
	Medium satisfaction[b)]	148.40±19.62			
	Unsatisfaction[c)]	146.77±16.35			
Charge of clinical practice	Professor	150.81±20.60	.128	.943	
	Head nurse	149.07±22.61			
	Professor and head nurse	149.80±19.05			
	The others	147.62±16.92			

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수행능력

임상수행능력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t=3.563, p=.000) 남성이 여성보다 임상수행능력이 높았다. 임상수행능력은 결혼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결혼을 하지 않은 군의 임상수행능력이 높았다(t=-2.079, p=.039). 임상수행능력은 대학 입학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9.352, p=.000) 사후분석 결과 매우 만족한다는 군이 중간 만족한다는 군과 불만족한다는 군보다 높았다. 임상수행능력은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7.341, p=.000) 사후분석 결과 매우 만족하는 군이 중간 만족하는 군과 불만족하는 군보다 높았다.

진로정체감과 임상수행능력과의 관계

진로정체감과 임상수행능력은 r=-.331(p=.000)의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Table 5> Correlation with career identity and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Clinical practice competency(p)
Career identity	-.331(.000)

논 의

타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높은 간호학생은 진로정체감에 대해 간과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조기퇴직과 높은 이직률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의 방안으로서 최근 들어 간호학생의 진로정체감에 대한 연구가 나타난 것(권윤희, 2002; 조희, 이규영, 2006)은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직업에 대한 자기 확신정도인 진로정체감이 높다면 간호학생은 간호전문직에 대한 명확하고 안정된 진로준비행동을 할 수 있을 것(조희, 이규영, 2006)으로 고려되기 때문이다. 진로정체감이 높으면 전문직에 대한 명확하고 안정된 진로준비행동을 하고 이는 조기퇴직과 높은 이직률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의 진로정체감은 총점 31.72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3년제 3학년을 대상으로 한 권윤희(2002)의 총점 32.08-34.50보다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권윤희(2002)의 연구가 본 연구의 대상자와 같이 3년제 3학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동일한 도구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차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본 연구와 권윤희(2002)의 연구는 시간적 차이가 있으므로 시간에 따라 간호학생의 진로정체감이 낮아진 것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임상수행능력은 총점 145.13으로 간호과 3년제 간호과 2학년과 3학년을 대상으로 한 김혜숙(2002)의 총점 180.01보다 낮았으나 3년제와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최미숙(2005)의 총점 136.01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는 3년제 3학년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수행능력을 3월에 측정하였으나 김혜숙(2002)의 연구에서는 3년제 2학년과 3학년의 임상수행능력을 11월 달에 측정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3학년과 김혜숙(2002)의 2학년 임상실습 기간이 비슷하며 3학년은 졸업을 앞둔 학생이기에 본 연구 대상자보다 임상기간이 길기 때문에 김혜숙(2005)의 임상수행능력이 높을 수 있다. 그러나 3년제 2학년, 3학년과 4년제 3학년, 4학년을 대상으로 한 최미숙(2005)의 연구 또한 10월에서 12월에 걸쳐 자료수집이 이루어졌으므로 본 연구 대상자보다 임상수행능력이 높아야 하나 오히려 낮아 학제에 따른 차이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을 영역별로 보면, 본 연구결과에서는 대인관계 의사소통부분이 가장 높아 김혜숙(2002)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이는 간호학생이 임상에서 대상자와의 대인관계와 의사소통을 가장 능숙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규은, 하나선 및 길숙영(2000)의 결과에서 대인관계와 의사소통이 가장 낮게 나온 것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결과가 실제적으로 간호학생의 대인관계 의사소통 부분 능력이 향상되었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김혜숙(2002)과 최미숙(2005)의 연구에서 간호과정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간호기술이 가장 낮게 나타나 차이가 있었다. 이는 과거보다는 체계적으로 간호과정에 대하여 기본간호학 실습에서부터 간호과정과 비판적 사고에 대해 학습시키고 반복 훈련한 결과 간호과정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임상수행능력 중 아직 낮은 수준이므로 계속적인 간호과정 강화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간호기술이 가장 낮은 점수가 나타난 것은 최근 임상에서 환자권리 신장과 의료기기의 발달로 간호학생이 실제로 간호기술을 할 기회가 박탈되어 간호기술에 대한 자신감이 감소되었을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으므로 임상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습을 대체하면서 간호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정체감이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연령, 결혼여부, 대학입학시의 만족도,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이었다. 연령에 따른 진로정체감은 3학년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20세 이하 연령에서 진로정체감이 가장 높은 본 연구 결과와 1학년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희와 이규영(2006)의 24세-25세 연령에서 가장 진로정체감이 높은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나이가 많은 간

호학생은 간호과에서 간호교육과정을 경험하면서 오히려 진로정체감에 혼돈을 경험할 수도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또한 미혼인 대상자가 결혼을 한 대상자보다 진로정체감이 높게 나타나 결혼생활이 간호학생의 진로정체감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진로정체감과 대학입학시의 만족도가 유의한 차가 있었으며 특히 매우 만족한 군보다 중간 만족한 군이나 불만족한 군의 진로정체감이 높게 나타나 조희와 이규영(2006)의 대학입학 시에 매우 만족한 대상자가 불만족스러운 대상자보다 진로정체감이 높은 것과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대학 입학 시에 만족도가 높았던 간호학생이 간호사 역할에 대한 높은 기준과 환상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 임상실습을 하면서 이에 대한 갈등과 실망을 많이 하는 것을 관찰한 본 연구자의 경험을 토대로 이러한 갈등과 실망이 대상자의 진로정체감을 낮게 했을 수도 있다고 유추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자 수가 적어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대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임상실습에 매우 만족한 대상자보다 중간 만족하였거나 불만족한 대상자의 진로정체감이 높은 것을 감안할 때 임상실습 경험을 통해 간호학생이 간호사에 대한 역할을 간접경험하면서 진로정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간호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수행능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은 성별, 결혼 유무, 대학입학 시의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이었다. 최미숙(2005)의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임상수행능력이 유의한 차가 없었으나 본 연구에서 남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것은 과거에는 남자 간호학생의 수준이 여자 간호학생에 비해 떨어졌으며 그 수가 매우 적었으나 최근 들어 남자 간호학생의 숫자도 많아졌을 뿐 만 아니라 질이 보다 향상되었음을 나타낼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임상수행능력은 주관적 보고에만 의존한 결과이므로 남학생들이 자신의 임상수행능력을 과대평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매우 만족한 대상자가 중간 만족하였거나 불만족한 대상자보다 임상수행능력이 유의하게 높은 것은 김혜숙(2002)의 연구결과와 최미숙(2005)의 연구결과에서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감에 따라 임상수행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지지한다.

본 연구에서 진로정체감과 임상수행능력은 r=-.328(p=.000)의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진로정체성과 임상수행능력 간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상반되며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실무능력인 임상수행능력과 졸업 후 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진로정체감과의 관계가 부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임상수행능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아닌 주관적 보고이므로 실제 임상수행능력과 진로정체감과의 관계를 설명하기에는 미흡하다. 그러므로 명확하고 객관적이며 구체적인 임상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여 실제적이고 객관적인 임상수행능력과 진로정체감과의 관계를 반복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D시에 소재한 2개 대학 3학년 간호학생 217명을 대상으로 임상수행능력 향상, 간호학생의 졸업 후 적응력 향상 및 이직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진로정체감과 임상수행능력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도구는 간호학생의 진로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권윤희(2002)가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임상수행능력은 최미숙(2005)이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program을 사용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진로정체감 및 임상수행능력은 실수, 백분율, 평균평점과 표준편차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정체감과 임상수행능력은 t-test와 ANOVA, 진로정체감과 임상수행능력과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진로정체감은 평균 31.90±5.92이었으며, 임상수행능력은 평균145.13±20.53이었다. 임상수행능력을 각 하부영역으로 살펴보면 대인관계 의사소통이 가장 높은 평균 3.43±.56이었으며 전문직 발전이 평균 3.42±.52로 그 다음 순이었으며 가장 낮은 임상수행능력 영역은 간호기술로 평균 3.25±.56이었다.
- 진로정체감은 대상자의 연령(F=4.925, p=.008), 대학입학시 만족도(F=24.024, p=.000)와 임상실습 만족도(F=10.179, p=.000)에 따라서 유의한 차가 있었다.
- 임상수행능력은 성별(t=3.563, p=.000), 결혼(t=-2.079, p=.039). 대학입학시의 만족도(F=9.352, p=.000)와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F=7.341, p=.000)에 따라서 유의한 차가 있었다.
- 진로정체감과 임상수행능력은 r=-.331(p=.000)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 간호학생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도구개발이 필요하다.
- 진로정체감과 임상수행능력을 포함한 신규간호사의 적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예측요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간호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킬 프로그램개발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권윤희 (2002). *MBTI를 활용한 성장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및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대구.

김봉환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서울.

김희수 (2007). 교과목으로서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 연구, *진로교육연구, 20*(2), 35-46.

김혜숙 (2002).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임상수행능력과의 관계 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1*, 64-76.

이규은, 하나선, 길숙영 (2000). 간호대학생의 자기표출과 임상수행능력간의 관계. *대한간호학회지, 30*(3), 571-583.

이원희, 김조자, 유지수, 허혜경, 김경숙, 임성민 (1990).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측정도구 개발 연구, *간호학논집, 13*, 17-27.

조명실 (2006).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울.

조 희, 이규영 (2006). 간호대학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및 진로정체감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0*(2), 163-173.

최미숙 (2005). *간호학생의 임상실습교육에 대한 교수효율성과 임상수행 능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서울.

황매향, 박혜영 (2005). 대학생의 진로발달과 학교적응도와의 관계. *직업능력개발연구, 8*(2), 157-176.

Holland, J. L., Diger, D. C., & Power, P. G. (1980). *My vocational situation*. Palo Alto. CA: Counseling Psychology Press.

Lee-Hsieh, J., Chihui Kao., Chienlin Kuo., & Tseng, H. F. (2003). Clinical nursing competence of RN-to-BSN students in a nursing concept-based curriculum in taiwan. *J Nurs Educ, 42*(12), 536-545.

Watson, R., Stimpson, A., Topping, A., & Porock, D. (2002). Clinical competence assessment in nursing: a systemic review of the literature. *J Adv Nurs, 39*(5), 421-431.

Zhang, Z., X, Lux, W., Arther, D., & Wong, T. (2001). Nursing competencies: personal characteristics contributing to effective nursing performance. *J Adv Nurs, 33*(4), 467-476.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Identity and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Choi, Eunhee[1)]

1) Full-time Instructor, Department of Nursing, Yeungnam College of Science & Technology

Purpose: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dentify the level of career identity and clinical competency 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m in nursing students. **Method:** Subjects were junior students of 2 colleges in Daegu (N=217). A self-rating questionnaire included demographic data,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and the clinical competency Korean scale. We received consents from teachers and students. The data was analyzed by frequency, percentage, t-test,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using the SPSS 12.0 Program. **Result:** The mean score of career identity was 31.90 points and clinical competency was 145.13. Career identity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age, satisfaction of college entrance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Clinical competency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ex, marriage, satisfaction of college entrance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The data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career identity and clinical competency.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find affecting factors on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and to develop objective tools for clinical competency and to improve clinical competency programs.

Key words : Nursing student, Identity, Nursing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Choi, Eunhee*
Department of Nursing, Yeungnam College of Science & Technology
Hyun-chung-ro 274, Nam-gu, Daegu 705-703, Korea
Tel: 82-53-650-9388 Fax: 82-53-625-4705 E-mail: eh5472@ync.ac.kr